

(가) 길림성의 인삼 생산

길림성의 인삼 생산량은 전 세계 인삼 생산량의 70%에 달하며, 길림성 인삼 재배면적은 연차별 다소 변화를 보이나 평균 3,500~3,700ha를 유지하고 있으며, 총 생산량은 2013년 32,100톤으로 추정된다. 길림성에서 생산된 인삼은 1000위안/kg으로 한국 인삼(1만 위안/kg)에 비해 1/10 수준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서 미국이나 캐나다 등 서양삼과 가격을 비교했을 때도 가격이 상당히 저렴한 수준이나, 농약 잔류량이 높아 국제 시장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다. 길림성 인삼 매출액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의 인삼산업 지원 발표로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 기준 길림성 인삼 산업 총 매출액은 290억 위안에 달하며 2009년 51억 위안, 2010년 102억위안, 2011년 133억 위안, 2012년 204억 위안에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해 평균 400~500톤의 한국 고려인삼 종자가 중국으로 유출되어 재배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2-2013년 중국의 인삼 주산지역인 길림성의 지역별 수확면적과 생산량 추이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확면적은 각각 3,205ha과 3,312ha로서 약 3% 증가하였으며 생산량은 각각 32,843톤과 32,088톤으로서 약 2%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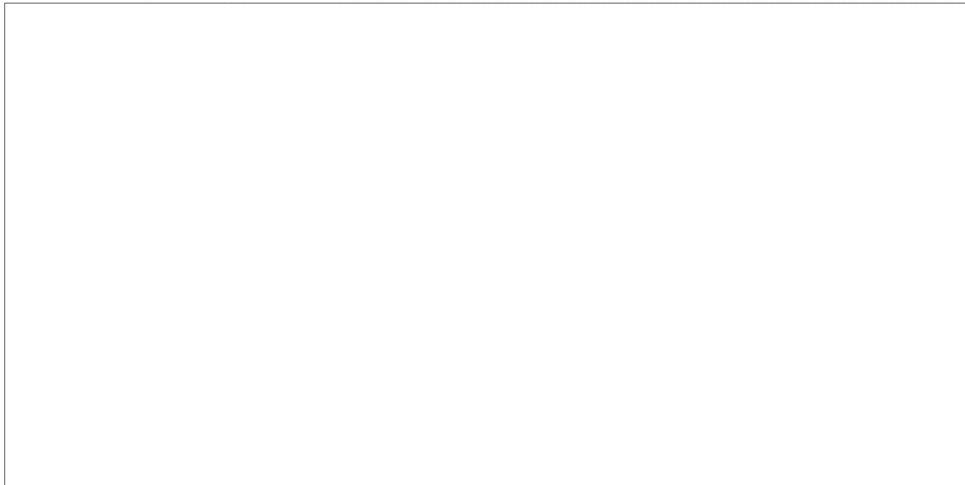


그림 11. 길림성의 인삼 재배면적 변화

그림 12. 길림성의 인삼 매출액